

한 공 기



WORLD SERVICE FOR PEACE in ACEH
2014 22th September - 28th September

NO.11 사랑의 나눔 있는곳에



**RUMAH RELAWAN
REMAJA
Peace Volunteer Center**

Jln. Peukan Bada-Ulee Lheu Dsn. Kp Banda
Gampong Lam Lumpu, kec.Peukan Bada, Aceh Besar,
Propinsi aceh, Indonesia Tel : +62 (0)6-514-5850

한 톨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열한 번째 소식을 전하며

나눔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공동체가 함께 삶을 꾸려 나가는 시간. 맛있는 요리를 함께 만드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모임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 등등 이런 나눔이 있는 곳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조금은 더 가슴으로 실현되길 누구보다 원해보는 요즘입니다.



SEREMPAH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던 시간



IKHLAS KAFE 전시 준비를 돕는 익산

2014.09.22. Mon

아침 회의를 마치고 IKHLAS KAFE에 전시될 사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오래된 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처음은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익산과 함께 잉크도 새로 채우고 테스트 및 정비를 여러 차례 한끝에 겨우 원 색상에 가깝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양손이 잉크로 물들자 서로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뭐가 좋은지 킁킁거리며 실없이 웃어댔습니다. 오래간만에 예전 친구들 이랑 격 없이 웃고 떠들며 작업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몇 주 동안 서른 장에 가까운 사진들 모았고 크기가 다르게 각각 두 장씩 출력해 서늘한 곳에서 건조해 가면서 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전에 모두 출력을 할 수 있었고 오후에는 출력한 사진들로 입체감이 나도록 표현할 수 있게 일부 사진들을 잘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로미와 완다 벨로 그리고 뿌뜨라가 아체 전통방식의 요리를 해 주었는데 바나나잎으로 싸고 열기로 구운 떡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론뽕'이라고 불렀는데 꽤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습니다. 네 명의 남자가 한데 모여 반죽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바나나 잎으로 하나하나 감싸 작은 이쑤시개로 고정하며 모양을 만들고 굽기 시작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구워진 론뽕은 3R 친구들에게 나눠주자마자 쫄쫄한 식감과 단맛 때문인지 모두 이 맛 난 간식을 게논 감추듯 먹어 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오전에 출력한 사진 중 일부를 가위로 오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작업이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면서 1시간도 안 걸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집중을 많이 한 터라 작업을 더 진행하지 않고 다음 진행은 내일 다시 시작하기로 하며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2014.09.23. Tue

최근에 나자르에게 정기적으로 배우고 있는 아체 전통 춤 'Syair Likok Pulo'는 전통 가락에 맞춰 여러 사람이 함께 동작을 일치시켜야 하는 춤입니다. 개인적인 솜씨보다는 함께 서로의 호흡을 맞추어야만 가능한 춤인데 앉아서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릎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체 친구들이 신이 나서 가사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니 뭔가 이들만의 공감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간 것 같은 친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춤의 순서를 배웠다면 오늘은 춤에 사용되는 노래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춤 이름과 같은 'Syair Likok Pulo'라는 노래는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랫 가사로 시작



'syair Linkok Pulo' 노래를 배움

합니다. 하지만 의성어가 많고 고어가 있어 아체의 친구들도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본문의 내용을 다 알진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래의 첫 시작은 사회자가 판소리를 하듯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본격적인 노래가 진행되면 모든 부분을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합! 이라는 외침에 맞춰 일정 부분만 춤을 추는 구성원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서 춤과 노래를 익히고 정확한 타이밍에 모두가 동시에 시작하고 멈춰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노래를 어느 정도 배우고 그동안 연습한 춤을 함께 취보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고 다 함께 나자르가 준비해온 영상을 보면서 완성되었을 때의 춤을 감상했습니다.

SYAIR LIKOK PULO

Lailaahailallah

Abu Syammah aneuk Saidina Umar

Abu Syammah matee keunong rajam nibak ayah

Ummi Syammah di rumoh geuroe ie mata

Salam'alaikom warahmatuhu...

Saleum lon tuju keu bandum syedara

Keu rakan-rakan ngoen para tamu

Nyang ka meunyatuh dalam acara

Karena saleum nabi kheun sunnah

Jaroe ta mumat syarat mulia

Mulia wareh ranup lam puan

Mulia rakan mameh suara

Hai salam'alaikom jamee baroe troh

Tamong jak piyoh u ateuh tika

Ranup kamoe bri Bapak neu pajoh

Hana kamoe boh racon ngoen tuba

Racon ngoen tuba hana lon ba sajan

Salah bak Tuhan ampon desya

Hai aneuk nyoe lahen hai adoe e salam'alaikom
Allah

Lahen hai adoe e jamee baroe troh

Lahen hai adoe e tamong neu piyoh Allah

Lahen hai adoe e duk ateuh tika

Hai aneuk

*Sen hai ba kusen

Aleuh nyoe han le lon tem lahen la husen la ba-
gura sihen hai ba kusen

Bukon lee sayang lon kalon limeeng

Jirot le kameng tuwo lon jaga

Badan lon pijut meutamah kuneng

Lawet lon meu en bak peh-peh dada

Ulang *

**Tajak u banda dua pat meutheun

Pertama Bireun dua Peudada

Kaleuh lon tanyong bak rata ureung

Ek lalat bak kheung kaleuh lon tanda

Ulang *

***Bukon lee sayang lon kalon bueh

Ka puteh-puteh lam laot raya

Bukon lee sayang lon kalon wareeh

Janggut ka puteh sembahyang hana

Ulang *

Ulang **

Deungo lon kisah Hasan ngoen Husen

Yang puteh lisen asoe syiruga

Hasan ngoen Husen cuco di nabi

Aneuk tuan Siti Fatimah Zuhra

Shallu 'ala Muhammadin

Shallu 'ala Mufarsalin

Sahan nabi sahan nabi

Sahan nabi wal mursalin Allah ya Allah

He mala-mala deungoe-deungoe lon kisah saboh
khabaran

He mala-mala bayeun-bayeun teureubang jidong
cong jeumpa

****Milen milen laha wa laha uhella

Milen milen lahe wa lahe ehelle

Ulang ***

Ulang ****

Ulang **

Ulang ****

Hai jut ma'jut di kurok-kurok gunong

Di keuneuk tamong u dalam donya

Uroe di kurok malam di seubee

Malaikat thee geu jak doe teuma

Di laot sah di la ombak meualon

Kapai di ek tron meulumba-lumba

Hai bacut teuk salah bukon salah lon

Awai phon salah awai bak gata

Di laot sah

Hai aneuk nyoe lahen hai adoe e lagu ka abeh
Allah

Lahen hai adoe e nyang kamoe hidang

Lahen hai adoe e kamoe meuriwang Allah

Lahen hai adoe e uroe ka jula

Tarek pukat rakan beuh

Lam buleun seupot

Karoh eungkot jeunara eungkot jeunara



함께 사진 작업

2014.09.24. Wed

-

2014.09.25. Thu

수요일 밤 오랜만에 3R 친구들이 모두 모여 함께 사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준비해둔 재료들을 한데 모아 구성하고 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맘에 드는 것들을 골라 진행할 때마다 여기저기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웃고 떠들기 시작하다가도 어느새 집중하느라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다가 조용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이 어찌나 좋던지. 주위도 아랑곳 안 하고 밥도 거르고 손에 붙들린 것에 홀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시간이 흐르면 숨 안 쉬고도 살 수 있는 자기만의 우주에 두둥실 떠 있을 수 있게 되나 봅니다. 하지만 숨 고르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주도 사라지고 멀뚱히 앉아 침 삼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면 왠지 항상 배가 고프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 한국에서는 사방이 막혀있었는데 이곳 3R은 사방이 뚫려 풍경이 보이는 점이 다릅니다. 덕분에 바람이 솔솔 불어 식은땀도 날리고 그 좋던 자기만의 우주에서 돌아와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곁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IKHLAS KAFE 공연 준비중인 두사람

IKHLAS KAFE때 공연을 준비하는 나실님과 뿌뜨라는 저녁마다 연습하며 며칠째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곡은 Imagine과 Knocking on heaven's door 두 곡이었는데 밤늦게까지 연습함에도 피곤함으로 서로에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두 친구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며 모두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속하여야 할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2014.09.26.Fri

아침 일찍부터 로미와 익산이 채비하고 출발을 서둘렀습니다.

로미는 마을 주민들과 PEACE CAMP때 만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목공소를 운영하며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PEACE CAMP때 가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재해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주변의 나무를 베어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에 필요한 돈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하나를 파는 값이 너무 적었고 나무를 베는 수요가 많아져 민둥산이 될 정도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로미는 대안으로 하나의 나무에서 나오는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되면 몇 배의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무를 조금은 덜 베고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호소력 있다고 생각된 3R의 친구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의를 얻은 후에도 바로 시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3R 자체에서도 나무를 공수하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목공소 대부분은 아체의 아무 곳에서나 나무를 베어와 운영하고 있는데 나무를 베어온 곳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사업을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했습니다. 로미는 이런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고 3R이 나무를 베어 사용할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질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해 왔었습니다.

또한,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3R 자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아체의 기후 특성상 나무를 심을 수만 있다면 5년 주기로 목재용 나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순환의 준비가 만들어진다면 목공소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시작의 날을 기다리던 와중에 이런 고민을 알게 된 친구가 나무 심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곳에 나무와 약초 등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 때문인지 힘 있는 로미의 눈을 보게 됩니다. 따라나서는 익산이 좀 더 힘을 보태어 줄 것이고 함께하는 친구로 인해 마음에 여유도 생기겠지요. 좋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길 응원하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2014.09.27.Sat

-

2014.09.28.Sun



IKHLAS KAFE 준비

토요일. 기다려왔던 IKHLAS KAFE를 여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3R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IKHLAS KAFE때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먹을 것과 음료를 준비하는 부엌에도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 발을 설치했습니다. 모울리, 수눔, 이끄랄, 마리꼬, 사하자님은 이 모든 음식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한 주간동안 준비한 사진들은 1층 마루 외벽에 모두 설치를 마치고 각기 번호표를 달아 두었습니다. IKHLAS KAFE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어 같은 번호표의 사진은 선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IKHLAS KAFE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랜턴과 초를 준비해 손님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모두 큰 동요 없이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는 아체 친구들입니다. 정전이 지속되자, 준비했던 공연들을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IKHLAS KAFA 공연

나실 님과 뿌뜨라의 듀엣 공연 (imagine / Knocking on heaven's door)을 시작으로 아체의 친구들이 즉석에서 연주를 보여주고 시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불이 들어오지 않아 작은 조명에 의지한 공연은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많은 사람을 한 대 웅기종이 모이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총총히 모이고 노래와 연주 사람들의 작은 숨소리들이 3R 마룻바닥에 안개처럼 낮게 깔려 모두를 휘감습니다. 함께 모이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3R에 약 한 달간 머물렀던 나실 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무는 동안 내내 모든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해주는 나실 님을 보내며 모두 아쉬워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기약 없는 헤어짐이지만 그동안 함께한 평온한 시간을 서로의 마음에 간직하며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정든 친구들을 뒤로하고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공항 안으로 들어간 나실 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아체 친구들입니다.

1주간 정리

2014.09.22-09.28

사랑의 나눔 있는곳에

한 주간 주요 장소

Aceh 3R

소식나눔

‘SYAIR LIKOK PULO’라는 아체 전통춤 배움

로미와 익산이 나무심을 장소에 관해 이야기 함

IKHLAS KAFE DAY

나실님 귀국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물어봐 주세요.
편지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망

‘한 공기’의 한 톨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쌀 한 톨 같은 사람들. 그런 한 톨 한 톨이 모여 밥 한 공기를 짓고,
그 ‘한 공기’ 나눠 먹는 살림살이가 예술이 되길 바라봅니다.

hangonggi@gmail.com